

제 ① 교시

국 어

홀수형

수험번호 ( )

성 명 (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나는 아는이를 만났다.
- ② 동생이 떠난지 오래다.
- ③ 그가 말한바를 알겠다.
- ④ 너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다음 문장에서 불필요한 어절은?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 ① 공기를                      ② 환기해야
- ③ 감기에                      ④ 걸리는

3.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은?

- ① 닫히다[다티다]              ② 먹히다[머키다]
- ③ 잡히다[자피다]              ④ 꽃히다[꼬치다]

4.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은?

- ① 저는 어제 친구를 만납니다.
- ② 설마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다.
- ③ 이 사과는 가격이 저렴하십니다.
- ④ 그것은 형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거나,  
고혼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러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琉璃窓)」 -

(나) 어더 니 일이여 그릴 줄을 모로던가  
이시라 흐더면 가랴마는 제 구티야  
보니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황진이 -

(다) 바릿밥 남 주시고 잡숫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얇은 옷을  
숨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어라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 님이 계시온 듯  
닫힌 창 바빠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고  
산 속에 추위 이르니 ㉤ 님을 어이하올고

- 정인보, 「자모사(慈母思)」 -

\* 보공(補空): 시신을 입관(入棺)한 뒤에 관 속의 빈 곳을 다른 물건으로 메워서 채움. 또는 그런 물건.

5. (가)~(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다)에는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가)는 비유적 표현으로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나)의 시적 화자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다.
- ④ (다)에는 시적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

6. (가)~(다)에 드러난 공통된 정서는?

- ① 두려움      ② 그리움      ③ 놀라움      ④ 즐거움

7. ㉠~㉤ 중 <보기>의 밑줄 친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보기>—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에 어긋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기법을 역설이라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8. ㉤과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보기>—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는데.  
유자(柚子) 안이라도 품엄죽도 흐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시 글노 설워 흐느이다.

- 박인로 -

- ① 형제      ② 친구      ③ 임금      ④ 부모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천 원 돈이나 드는 줄 모르게 들인 것을 속으로 앓고 또 앞으로 돈 쓸 걱정을 하는 판에, 알 썬 해 놓은 일에 대하여 자식부터라도 그 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니 이래저래 화는 더 나는 것이다. 게다가 원래 못마땅한 자식이요, 또 오늘은 친기\*라 제사 반대군을 보니 가만 있어도 무슨 야단이든지 날 줄은 누구나 짐작했지만, 마침 거리가 좋아서 야단이 호되게 된 것이다.

“아니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예요. 아저씨께서 잘못 들으셨나 보외다.”

창훈이는 속으로는 시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인사치레로 한마디 하였다.

“잘못 듣다니? 내가 이롱증\*이 있단 말인가?”

“그만해 두세요. 상훈 군도 달래 그렇겠습니까? 이 전황\*한 통에 꿈적하면 돈이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창훈이는 이렇게도 변명해 주었다. 그러나 상훈이로서는 때리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더 미웠다.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랬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씹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무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나?”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길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물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 자식이 난봉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험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서는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 염상섭, 「삼대(三代)」 -

\* 친기(親忌): 부모의 제사.

\* 이롱증(耳聾症): 한방에서, 귀가 먹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병을 일컫는 말.

\* 전황(錢荒): 돈이 잘 돌지 않아서 매우 귀해지는 일.

9.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술한다.
- ② 허구적인 이야기로 인간의 삶을 드러낸다.
- ③ 자유로운 형식으로 체험과 사색을 기록한다.
- ④ 무대 위에서 사건을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준다.

10.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돈의 사용에 대해 부자간에 견해를 달리한다.
- ② 아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 ③ 아버지는 제사를 책임진 상훈을 기특하게 여긴다.
- ④ 당시에는 다른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11. 위 글에 드러난 등장 인물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상훈은 창훈의 변명에 힘을 얻고 있다.
- ② 상훈은 창훈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 ③ 창훈은 겉으로만 상훈을 위하는 체한다.
- ④ 창훈은 조영감의 이롱증을 염려하고 있다.

12.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의 비난을 모르는 척 무시하려고
- ② 족보를 제작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 ③ 일족에 끼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 ④ 족보 제작에 많은 돈이 들어갔음을 감추려고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간디 사상의 요체인 ㉡ 비폭력주의는 하나의 유효한 정치적 투쟁 수단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만유의 법칙을 사랑으로 파악하는 위대한 종교적, 철학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폭력주의 운동은 결코 수동적인 저항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의 불가사의하게 깊고 부드러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적 행동이었다.

간디는 절대로 몽상가는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은 폭력을 통해서만 인도의 해방도, 보편적인 인간 해방도 없다는 것이었다. 민족 해방은 단지 외국 지배자의 퇴각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 참다운 해방은 지배와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타파하고 그 구조에 길들여져 온 심리적 습관과 욕망을 뿌리로부터 변화시키는 일—다시 말하여 일체의 ‘칼의 교의(敎義)’로부터의 초월을 실현하는 것이다.

간디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큰 폭력은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득의 끊임없는 확대를 위해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제도화한 서양의 산업 문명이었다.

㉢ 근대 산업 문명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끊임없이 이기심을 자극하며, 금전과 물질의 노예로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평화와 명상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로 인하여 유럽의 노동 계급과 빈민에게 사회는 지옥이 되

고, 비서구 지역의 수많은 민중은 제국주의의 침탈 밑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여기에서, 간디 사상에서 물레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간디는 모든 인도 사람들이 매일 한두 시간만이라도 물레질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물레질의 가치는 경제적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레는 무엇보다 인간의 노역에 도움을 주면서 결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인간적 규모의 기계의 전형이다.

- 김종철, 「간디의 물레」 -

13.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간디 사상의 요체                      ② 인도 해방의 역사
- ③ 참다운 해방의 의미                  ④ 물레의 상징적 의미

14.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의 실천적 행동
- ② 물질적 이득의 확대
- ③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 ④ 착취와 억압 구조의 제도화

15. ㉡의 폐해가 아닌 것은?

- ①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
- ②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든다.
- ③ 소외된 인간관계를 회복시킨다.
- ④ 명상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씨(卞氏)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읊(揄)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兩)을 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씨의 술이 빠져 너털너털하고, 갓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 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

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 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 박지원, 「허생전(許生傳)」 -

16. 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생은 만 냥으로 과일 값을 좌우했다.
- ② 변씨는 집안 식구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 ③ 허생은 사들인 물건을 열 배의 값으로 되팔았다.
- ④ 변씨는 돈을 빌리려는 허생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17. 변씨가 생각하는 허생의 사람됨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뜻을 부풀려 선전한다.
- ② 허세를 부리며 중언부언한다.
- ③ 비굴한 얼굴로 신용을 자랑한다.
- ④ 말이 간결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18. ㉠과 <보기>의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보기>

산슈간 바회 아래 뽕집\*을 짓노라 하니  
 그 물론 늙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보리밥 찢는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긋 몫의 슬긋지 노니노라.  
 그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 윤선도, 「만홍」 -

\* 뽕집 :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하암 : 시골에 살면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

- ① 안분지족(安分知足)                  ② 선공후사(先公後私)
-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④ 입신양명(立身揚名)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미망인(未亡人)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告)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재(嗚呼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이 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心身)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懷抱)를 충충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冬至上使) 낙점(落點)을 무르와, 북경(北京)을 다녀오신 후에, 날들 여러 썸을 주시거늘, 친정(親庭)과 원근(遠近)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婢僕)들도 썸썸이 날날이 나뉘 주고, 그 중에 너를 택(擇)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 되었더니, 슬프다, 연분(緣分)이 비상(非常)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保全)하니, 비록 ㉔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 〈중 략〉

한 팔을 베어 낸 듯, 한 다리를 베어 낸 듯, 아깝다 바늘  
이여, ㉞ 옷섶을 만져 보니 꽃혔던 자리 없네.

- 유씨 부인, 「조침문(弔針文)」 -

19. 위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 ②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한문투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 위 글을 쓴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베푸는 삶을 실천하려고
- ② 절약의 미덕을 권장하려고
- ③ 부러진 바늘을 추모하려고
- ④ 아내의 도리를 가르치려고

21. 위 글에 드러난 서술자의 주된 정서는?

- ① 상실감                      ② 긴장감  
③ 안도감                     ④ 만족감

22. ㉠~㉣ 중 의미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 ① ㄱ 침자                      ② ㄴ 작은 물건  
③ ㄷ 무심한 물건          ④ ㄹ 옷걸이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베풀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 발뺄기 정도도 장만  
하지 못했으니, 오직 ㉡ 정신적인 부적 두 자를 마음에 지  
녀, 잘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너희들에게 물려  
주겠다. 너희들은 너무 야박하다고 하지 마라.

한 글자는 근(勤)이고, 또 한 글자는 검(儉)이다. 이 두 글자는 ㉔ 좋은 밭이나 ㉕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부지런함[勤]이란 무얼 뜻하겠는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때 할 일을 저녁때로 미루지 말며,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도록 하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도 맑은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늙은이는 앉아서 감독하고, 어린 사람들은 직접 행동으로 어른의 감독을 실천에 옮기고, 젊은이는 힘든 일을 하고, 병이 든 사람은 집을 지키고, 부인들은 길쌈을 하느라 한밤중[四更]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요컨대 집 안의 상하 남녀 간에 단 한 사람도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잠깐이라도 한가롭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부지런함이라 한다.

-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③ 구체적 예를 통해 교훈을 주고 있다.
- ④ 객관적 사실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24. ㉠~㉣ 중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밭땀기  
② ㉡ 정신적인 부적  
③ ㉢ 좋은 밭  
④ ㉣ 기름진 땅

25. 전개 과정으로 볼 때, 위 글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검소함의 의미
- ② 학문하는 자세
- ③ 선비의 기본 도리
- ④ 직분에 따른 역할

※ 확인사항

자신의 문제지 문형(홀수형)이 정확한가?

답을 OMR 카드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였는가?